

# 7월 1~12일 '2024 동남아 언어캠프'

### 전북대-부산외대 공동 운영, 참가자 모집 31일까지 부산외대에서 7개 정부 지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7월 1~12일 2주간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하는 '2024 동남아 언어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외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언어캠프에서는 5개의 동남아 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필리핀어(온라인))와 아랍어, 이탈리아어까지 총 7개의 정부 지정 특수외국어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45시간의 언어강의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이해를 돕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여름·겨울방학 연 2회 초·중급 코스로 나눠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초·중급

모두 연 1회 통합 운영한다.

동남아 언어캠프는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단장 배양수)과 전북대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강사와 교재, 숙박비 지원 등 캠프 운영 경비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소장 전제성)에서 동남아 지역이해 전문가 특강을 각각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전문가 특강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부산 지역 거주자가 아닌 수강생에게는 숙소로 부산외대 기숙사(20인 1실)를 무료로 제공한다.

캠프 참가자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포스터의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캠프

프 운영에 관한 상세 정보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홈페이지(<http://jiscas.jbnu.ac.kr>)와 페이스북(<http://facebook.com/ISEAS.JBNU>)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어강좌별 최대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정원 초과 시 수강생 선발은 '동남아 언어캠프를 위한 한국대학연합 참여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일부 정원 미달 강좌가 생길 시 신청자가 많은 언어강좌의 정원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전북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된다. 2021년 전북대와 부산외대 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부산외대 계절학기 과목으로 개설되는 초급반 언어강좌를 수강하면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언어강좌 이수 및 지역이해 특강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해 수료할 경우 학비는 전액

전북대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지원한다.

한편, 동남아 언어캠프는 교육기관의 회소와 지역 관중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캠프 운영 예산 지원과 실무는 맡은 전북대와 부산외대를 중심으로 국내 30개 대학, 44개 학과 및 연구기관이 '동남아 언어캠프를 위한 한국대학연합(UNSEASK)'을 결성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캠프 운영 개선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이르기까지 참여가 이어지며 2023년 겨울캠프까지 총 498명이 참여했다. 지난 5년 동안 캠프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63점(5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청렴계약 노력 '결실'

###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표창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교육지원청 부문에서는 군산교육지원청이, 학교 부문에서는 군산명화학교·전주영성고등학교가 각각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표창은 기관별 S2B 이용 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을 평가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조달건수 4만2,297건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했고, 조달 금액은 527



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2% 상승했다.

이는 그동안 S2B에 전 북교육장터 코너를 개설해 지역 제품 우선구매

에 앞장섰고, 또 지역별 S2B 지정보조리장치를 이용한 교육 실시와 분기별 실적 관리, 그리고 우수기관 계약담당자 시상 등 공정한 계약업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분청, 직속기관, 학교 계약업무담당자들이 다 함께 노력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상담 동창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28일 무주 안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제9회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체험 희망 직업군 신청에 따라 전문 직업 체험 업체의 △웹툰 작가 △로봇공학자 △특수분장 △네일아티스트 △3D펜 전문가 △드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응급구조사 △치위생사 △토탈뷰티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 △반려견 훈련사와 반려견 미용사, 동물복지사 △운동치방사, 트레이너, 체육지도사 △영양관리사, 크리에이터, 콘텐츠 디자이너 △부사관 탐색 부스를 마련, 개인별 맞춤형 진로상담과 활동 중심 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27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및 하림미션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특별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동아시아 평화 우애 사상 기반해 실현 가능"

### 전주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특별 강연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7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및 하림미션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특별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본교 학생들을 위한 특강과 토론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한·일 대학생들 간의 교류를 위해 공익재단법인 유아이 관계자와 일본 대학생들도 동행했다.

1부에서는 '나에게 우애' 주제로 우애 사상이 한·중·일 삼국 관계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서구의 사상과는 달리 동양의 화(和) 사상은 주변인,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요시한다"며 "비·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도 우애 사상에 기반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전주대 재학생들과 방문한 일본 학생들이 함께 조를 이뤄 환경문제에 대해 양국 대학생들의 생각과 실태 등을 일본어로 토론

을 벌이고, 조별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배 총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 우리 대학에 방문해 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에게 감사드린다"며 "특강을 통해 학문적 호기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시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고민해 보는 등 우리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98대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의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를 촉구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장수교육지원청, 가정의 달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감 장추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했다.

장수 관내 학부모 중 다자녀 가정, 이주배경가정 등을 우선으로 가족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30여 가족이 신청하였으며 15가족이 선정되었다. 지난 28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증명하고,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장수교육지원청이 지금처럼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길 바랐다. 더불어 가족과 행복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추영 교육장은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장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김관희 기자

## 전공교육과정 성과인증 우수학과 인증서 수여

### 호원대, 간호학과·유아교육과 등 2개 학과... 유효기간 4년

호원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성과인증센터는 28일 총장실에서 전공교육과정 성과인증 우수학과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에 따르면 우수 인증을 획득한 학과는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2개 학과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는 학부(과)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선과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핵심역량 기반 및 전공능력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질 향상과 질 관리 및 환류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성과인증은 기본인증을 받은 학부(과)를 대상으로 그동안 운영해 온 교육과정의 분석, 설계, 개발, 운영까지 종합적인 성과·환류에 주목했다.

인증 평가는 자체 개발한 평가 준거와 내용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친 후 교육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장은성 기자



또한 교육과정 개발 성과와 결과, 교육 만족도, 교과목 인증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자체진단 보고서에 담아 교육과정의 양적·질적 성과를 모두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전공교육과정 성과인증은 인증 대상이던 학부(과)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은 전공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혁신을 앞장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남 곡성 일원서 '2024년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전남 곡성 일원에서 '2024년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을 통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힐링 프로그램은 지난 17일과 28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가차마을을 탐방하며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숲 해설과 산림욕, 향기치료 및 공예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장은성 기자

## '예술적 재능·열정 맘껏'

### 전북자치도교육청, 예능리더 선발대회 참가자 신청접수 14개 시군 5개 권역으로 나눠 예선... 본선은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4년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연오디션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학교문화 예술교육 촉진의 장을 형성하고, 나아가 예능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참가분야는 보컬·댄스·밴드·랩 등으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역별로 서류 접수 및 심사 후 △군산 예선(6월23일)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예선(8월17일) △익산 예선(8월24일)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예선(9월28일) △전주, 완주 예선(10월5일)을 거쳐 지역별 본선 수상자들이 참가하는 본선대회를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메일([spring@jtv.m.kr](mailto:spring@jtv.m.kr))로 가능하다. 대회를 주관하는 JTV 전주방송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심사용 동영상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예능분야에 관심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무대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가능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